

■ '고유가 폭탄'에 흠뻑 젖어 포기 속출 여수항 현지 르포

육인 배엔 고기 대신 한숨만

“기름값·인건비 빼면 무조건 적자”
어민들 “해상 시위 적극 참여할 것”

고유가 직격탄에 시름하고 있는 어민들이 속속 흠뻑 젖어 포기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출어를 해해야 적지만 늘기 때문에 아예 일손을 놓는 어민들이 늘면서 화물·포구 봉쇄 등 집단 해상시위에 나선다는 것이다.

70여 개 어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어업연대(이하 전어연)는 오는 17~18일 각 항·포구에서 정부의 실질적인 고유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해상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유가 급등 탓에 여수 등 전남지역 어민들도 출어를 잇달아 포기하고 해상시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10시 여수시 국동항. 분주해야 할 선착장은 적막감이 감돌았다. ‘만선’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된 선착장에는 그물을 손질하고 선박을 정비하는 선주·선원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다만, 조업에 나섰어야 할 4~5t급 어선 등 100여 척이 선착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치솟는 어업용 면세유값과 줄어드는 어획량을 걱정하는 어민들의 한숨소리가 남아 있었다.

5t급 어선 ‘신일호’ 선장 박형철(59·여수시 신일동)씨는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전정부지치 치솟는 반면 갯장어는 하루 평균 어획량이 고작 20kg(1kg당 1만~1만5천원) 정도일 뿐”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운승호’ 선장 백철윤(53·여수시 국동)씨는 “지난 IMF때에도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다. 최근 전어연에

서 유가 관련 해상시위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출어도 못할 판에 집회라도 적극 참석할 생각”이라며 “보통 출어하면 하루 평균 200L 짜리 세드럼의 기름을 사용하는데, 기름값·인건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날 수협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 어업용 기름의 64%를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 가격은 지난해 200L 한 드럼당 19만8천16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만9000원에 비해 100% 가까이 올랐다.

또 최근 전남도 조사에서 8t 이하 연안어업을 하는 연승어선 8천500척 중 20%인 1천700척, 자망어선 3천300척 중 20%인 660척이 조업을 나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지난해 18일과 19일 전국 회원 조합장들이 모인 ‘2008 수산정책 워크숍’에서 ▲경유기 준가격 1천800원에서 1천400원으로 인하 ▲어업용 유류 원유관세 및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감착 확대와 비용 현실화 등 5개 사항을 정부에 요구했으나, 정부는 더 이상의 유류비 직접보조가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어수 어업인협회 관계자는 “고유가 직격탄에 조업을 중단하고 지역을 떠나는 어민들도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전어연과 함께 행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13일 여수시 국동항 선착장. ‘고유가 직격탄’에 맞은 어민들이 조업을 포기하면서 100여척의 어선들이 선착장에 묶여 있다. /나영주기자 mjna@

곳곳 빗길 교통사고... 익사...

주말·휴일 사건·사고로 얼룩

7월 둘째 주 주말과 휴일인 12, 13일 광주·전남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내린 가운데 빗길 교통사고와 익사 사건 등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빗길 교통사고·16명 사상=12일 새벽 3시34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 인근에서 1t 포터 더블캡(운전자 김모·47)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전신주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김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문모(47)씨 등 3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앞서 12일 새벽 2시33분께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운전자 임모·55)가 가로등과 전신주를 연속으로 들이받아 승객 윤모(44)씨가 숨지고, 운전자 임씨와 승객 김모(여·41)씨가 중상을 입었다.

이날 새벽 5시에 순천시 덕암동 역전주유소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승합차(운전자 이모·23)가 도로를 건너던 최모씨(29)와 오모(29)씨를 치어 최씨가 숨지고, 오씨는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순천 모 대학 휴학생으로 혈중알콜농도 0.091%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난 사고로 3명 숨져=12일 오전 11시30분께 완도군 노화도 동천항 앞 바다에서 하계 연수를 왔던 조모(50·충남 A고교 행정실 직원)씨가 숨진 채물에 떠올랐다.

같은 날 낮 12시17분께에는 여수시 수정동 신항 1부두 방파제에서 낚시를 하던 송모(48)씨가 추락해 숨졌다. 또 이날 오후 6시5분께 광주시 북구 일동 모 방파제사 실외수영장에서 정모(9·초등 3년)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동거인 살해, 신병비판 자살도=12일 오전 8시20분께 영암군 신북면 H의원 앞 도로에서 김모(69)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모(69)씨가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이날 오전 10시25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모 아파트에서 서모(여·55)씨가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딸(29)이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서씨는 몇 해 전부터 쇠고기·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고깃집을 운영했으나 최근 손님이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니원침 (7555) 김동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막 및 상담관영

동호회원들이 오토바이 절도범 잡아

○카자흐스탄에서 산업연수생이 되어 취한 채 고가의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나다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달미.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E(26)씨는 13일 새벽 4시께 남구 월산동 T호스트 앞 주차장에 있던 시가 600만원 상당의 600cc 일제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났다는 것.

○오토바이 주인 이모(20)씨는 도난 사실을 안 즉시 함께 활동하는 오토바이 동호회 회원들에게 “도와 달라”는 전화를 했고, 회원 8명이 긴급출동해 20여분만에 절도 현장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E씨를 붙잡았다.

○오는 18일 귀국해야하는 산업연수생 신분인 E씨는 달아나던 중 넘어져 다리가 골절돼 입원 중이며, 경찰은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 /광명기자 kps@kwangju.co.kr

국토대장정 여대생 탈진 잇따라

국토대장정 행사에 참가한 여대생들이 탈수증세를 호소하며 잇따라 쓰러졌다.

지난 12일 오후 1시15분께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 인근 국도에서 국토대장정 행사에 참가해 행진을 하던 여대생 장모(여·20)씨가 탈수증세를 치어 쓰러져 인근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오전 10시24분께에는 같은 국토대장정팀원인 여대생 임모(여·21)씨와 최모(여·26)씨가 탈수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들은 의료지원을 나와 대열 후미를 뒤따르던 119구급차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후송된 여대생들은 Y 청년단체 소속으로 베이징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는 국토대장정 행진에 참가했으며, 12일부터 21박22일 일정으로 일주일까지 행진할 예정이었다.

Y 청년단체 관계자는 “무더위 속에서 아스팔트 위를 걷다 보니 체력이 약한 여대생들이 탈수증세를 보인 것 같다”며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구급차가 대열을 뒤따르고 있고, 참가자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전남대 총장 당선자 논문 의혹 조사 착수

전남대가 김윤수 차기 총장 당선자의 논문 중복게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전남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박찬국 대학원장)는 최근 교내외 전문가 7명으로 조사위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조사위 위원 7명 중 2명은 관련 학회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가 영입됐으며 나머지 5명은 농업생명과학대학

를 비롯한 전남대 내 이공계열 단과대학 교수들로 채워졌다.

조사위는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김 당선자의 논문 13편을 대상으로 중복게재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규정대로라면 조사기간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난 11월부터 90일간이지만 다음달 취임(8월17일)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서둘러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삼필기자 camus@kwangju.co.kr

“CCTV야 고마워”

광주 곳곳서 절도범 검거 공헌

경찰은 병원에 설치된 CCTV 화면과 한자 진로기록부를 대조해 이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검거했다.

광주북부경찰도 새마을금고에서

를 훔쳐 갔다가 새마을금고 내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포착되면서 달미를 잡았다. 또 북구 두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도 심모(여·60)씨가 지난 8일 밤 11시10분께 손님 신모(여·20)씨가 식품 냉장고 위에 지갑을 두고 물건을 고르는 사이 이씨를 훔쳐갔지만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혀 사흘 만에 검거됐다.

/이종형기자 glee@kwangju.co.kr

절도범들이 잇따라 CCTV에 달미를 잡았다.

광주남부경찰은 12일 한방병원에서 지갑을 훔친 이모(28)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병원 외래환자인 이씨는 지난 11일 낮 12시2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한방병원 입원실에서 한의사 조모(여·25)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조씨가 침대 위에 둔 지갑을 갖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Tour (롯데관광) featuring travel packages to various countries like China, Japan, Korea, and Europe, with prices and promotional offers.